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보험업계, 비용절감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본격화

- 최근 보험업계는 비용절감을 위해 보험업무 전 분야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(cloud computing system)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음.
 - 손보재팬이 계약관리 부문에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*을 도입한 데 이어, 최근 스미토모생명도 업계 최초로 재무분석 및 위험관리 등 자산운용 분야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9월부터 상용화하기로 함.
 - *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(cloud computing system): 인터넷 기반(Cloud)의 컴퓨팅(Computing) 기술로 인터넷상의 유틸리티 데이터 서버에 프로그램 및 자료를 두고 PC나 휴대폰 등에 불러와서 사용하는 웹기반 소프트웨어 시스템
 - 타이요생명도 최근 회사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클라우드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중국 대련에 있는 현지 인력과 공동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로 결정함.
-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도입으로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대 40%가 감소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어 향후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.
 - IBM, NEC 등 IT 협력업체의 도움을 받아 개발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, 자산 운용 등 보험업무 뿐만 아니라 직원 내부 업무 분야에서도 활용되는 추세임.
 -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상용화되면 유지관리비가 향후 5년간 최대 40%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속도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시간 단축으로 인건비도 경감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.
 - 그러나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데이터 손실 및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업계가 보안 및 백업 체제 강화에도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음.

(FujiSankei Business I, 8/10)